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

차수민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A Systematic Review of Domestic Research on Clinical Fieldwork in Occupational Therapy

Su-Min Cha

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RISS, KISS, Google Scholar,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용어는 “Occupational Therapy” AND “Clinical Fieldwork”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8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연구 8편(100.0%) 모두가 Level IV(조사연구)에 해당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조사가 6편(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75.0%)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주제는 임상실습만족도가 4편(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교육체계와 임상실습에 따른 변화가 각각 2편(25.0%)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확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작업치료, 임상실습, 교육, 체계적 고찰,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by conducting a systematic review of domestic research on clinical fieldwork in occupational therapy. From 2000 to 2019, papers registered in the Google Scholar, RISS, KISS,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databases were searched. The search term was “Occupational Therapy” AND “Clinical Fieldwork”, and a total of 8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tre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 collection method were surveys 6 studies(75.0%), and the most frequent subject wer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was 6 studies(75.0%). The most frequent main theme was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4 studies(50.0%). In the future, it was confirmed t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clinical research related to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is needed.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Systematic Review, Research Trend

*Corresponding Author : Su-Min Cha(csm1206@hanmail.net)

Received July 24,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1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정서적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으로 치료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직업 또는 놀이 환경 내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돕는 전문가이다[1]. 작업치료사에게는 바른 인성과 직업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 높은 수준의 전공지식과 효과적인 치료능력 등이 요구된다[2].

작업치료 실습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초임 작업치료사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3-6].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실기 수행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이 임상실습교육을 통한 경험에 따라 진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8].

국내 작업치료(학)과는 1979년에 처음 개설된 이후 1998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통해 2019년 기준으로 61개의 대학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9]. 개설 학과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실습 학생 수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임상실습 기관 현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10]. 국내 세계작업치료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FOT) 교육과정 평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임상실습 교육평가영역에서 총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한 기관에서 최소한 2개월간의 실습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1]. 세부적으로는 임상실습교육 교과목과 시간의 적합성, 임상실습교육기관의 적합성, 임상실습교육 담당자(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의 적합성, 임상실습교육기관의 적합성, 임상실습교육 평가방식의 적합성 등의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질 높은 임상실습교육체계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1]. 이는 작업치료사로서의 자질확보에 있어서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전체 61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만이 WFOT 교육인증을 받았으며, 교육 인증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그 외의 대학들은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몇몇 의료기관들은 임상실습 지침을 가지고 실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12].

미국의 임상실습 교육 지침은 1923년 처음으로 미국 작업치료사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에 의해 표준이 승인되었다. 1923년 첫 승인 시, 임상실습 기간은 3개월이 요구되었으며, 1935년에는 9개월, 1973년에는 6개월로 바뀌었고[13, 14],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1980년대, 1990대에 임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5-18].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교육 체계를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거나 임상실습 교육기관의 현황과 및 실습내용, 환경 등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19-21]. 2004년에 실시한 Kim, Park, Lee, Kang[19]의 연구에서 실습환경에 대해 89.6%가 만족하였고, 실습지도 체계와 실습생 이용 시설에 대해 23~30%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85%가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획득했지만 51%는 실습 중에 갈등을 느꼈다고 했다. 2004년에 실시한 Lee, et al.[20]의 연구에서는 총 24개 대학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학교당 평균 14.3개소 실습기관에서 평균 15.1주, 664시간을 실시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작업치료사의 경력은 3년 이하인 경우가 57.9%를 차지하였고,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기관의 47.2%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 실시한 Song[21]의 연구는 Lee, et al.[20]의 연구에 대한 고찰 및 차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임상실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재 국내 작업치료사는 2019년 기준 18,517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작업치료사 배출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작업치료 개설학과 수와 그에 따른 실습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실습기관의 환경 또한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010년 이후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상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

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다.
- 2)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다.
- 3)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주요 변수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포괄적인 문헌 검색방법으로 분석대상 연구를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 선정기준

자료수집을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RISS, KISS, Google Scholar,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용어는 “Occupational Therapy” AND “Clinical Fieldwork”, “작업치료” AND 임상실습”으로 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본 연구의 포함기준, 배제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검색을 한 결과 총 1,46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449편의 연구가 제외되고, 11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배제기준에 따라 3편의 연구가 제외되고 총 8편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2.2.1 포함기준

- 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출판된 학술지 연구
- 나. 국내 작업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
- 다. 임상실습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
- 라. 학교가 아닌 임상기관(병원,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을 포함하는 연구

2.2.2 배제기준

- 가. 임상실습이 주요 변인이 아니며, 임상실습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단순 조사연구
- 나. 국내 작업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
- 다. 학위논문, 포스터,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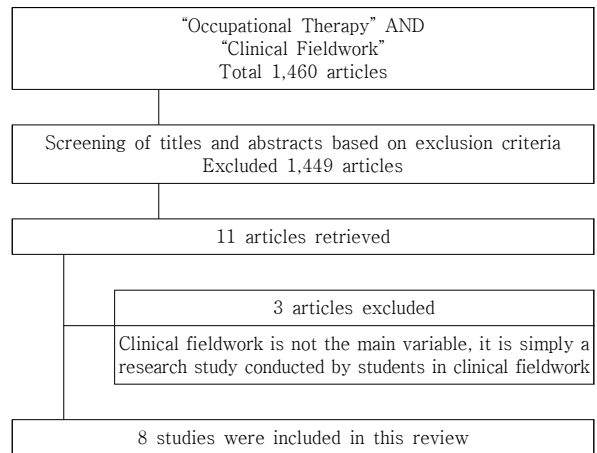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2.3 분석내용 및 방법

2.3.1 연구의 질적 수준

분석 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해 연구의 질적 수준(hierarchy of level of evidence for evidence bases practice) 분석모델을 사용하였으며, Arbesman, Scheer와 Lieberma[22]이 제시한 근거 수준 5단계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수준 5단계 분류법은 근거수준이 I 단계에서 V 단계로 높아질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 분석모델은 연구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인 Level I(무작위 대조실험연구,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Level II(비무작위 두집단 연구), Level III(비무작위 단일 집단 연구), Level IV(조사 연구, 개별실험연구), Level V(사례연구)의 순서로 연구들을 분류한다.

2.3.2 연구동향 및 임상실습 관련 주요 변수 분석

최종 선정된 총 8편의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방법 분석, 연구의 주요 주제 분석, 연구의 주요 변수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자료수집방법과 연구대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주요 주제 분석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에 따른 변화(인식, 자기효능감 등)”, “임상실습교육체계”를 포함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 분석은 분석대상 연구의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등, 작업치료 임상실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의 질적 수준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총 8편에 대한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 연구 8편(100.0%) 모두가 Level IV(조사연구)에 해당하였다(Table 5).

Table 1. Level of Quality Among each Study (N=8)

Level of evidence	Definition	Frequency n(%)
I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0.0)
II	Non randomized two group studies	0(0.0)
III	Non randomized one group studies	0(0.0)
IV	Single experimental studies	8(100.0)
V	Case studies	0(0.0)
Total		8(100.0)

3.2 연구의 방법론적 분석

분석대상 연구의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료수집 방법 분석 결과, 설문조사가 6편(75.0%), 면담이 2편(25.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분석결과, 작업치료 전공 학생 대상 연구가 6편(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치료 임상가가 1편(12.5%), 작업치료 임상가와 교수 대상 연구가 1편(12.5%)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2. Research Method Analysis (N=8)

Research Method		Frequency n(%)
Method of Data Collection	Survey	6(75.0)
	Interview	2(25.0)
	Total	8(100.0)
Subject of Study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6(75.0)
	Clinical fieldwork educator	1(12.5)
	Clinical fieldwork educator & Professor	1(12.5)
Total		8(100.0)

3.3 연구의 주요 주제 분석

분석대상 연구의 주요 주제 분석을 통한 작업치료 임

상실습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4편(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에 따른 변화와 임상실습 교육체계가 각각 2편(25.0%)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3. Research Main Theme Analysis (N=8)

Research Main Themes	Frequency n(%)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4(50.0)
Change after clinical fieldwork	2(25.0)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system	2(25.0)
Total	8(100.0)

3.4 연구의 주요 변수 분석

분석대상 연구의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주요 변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3편(2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 체계, 작업치료 준비기술, 임상실습 경험이 각각 2편(15.4%)으로 나타났다.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 교육내용, 임상실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자기효능감은 각각 1편(7.7%)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Major Variables Analysi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Frequency n(%)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	○						○	3(23.0)
Clinical fieldwork system			○		○				2(15.4)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fieldwork			○			○			2(15.4)
Clinical fieldwork experience				○			○		2(15.4)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								1(7.7)
Educational methods of practice according to therapy field						○			1(7.7)
Problems of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by clinical fieldwork educator					○				1(7.7)
self-efficacy						○			1(7.7)
Total	2	1	2	1	3	2	1	1	13(100.0)

Table 5.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No	Author (yr)	Evidence Level	Research Method			Main Theme	Major Variables	Main Outcomes
			Data Collection	Subject of Study	Sample Size(N)			
1	Lee, et al. [23] (2010)	Level IV	Survey	students	346	Change after clinical fieldwork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Highly satisfied items wer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fieldwork, diversity of therapeutic equipment and tools, regular education. Low satisfaction items were an evaluation of fieldwork and an offer of various learning materials.
2	Lee, Lee & Jang [24] (2013)	Level IV	Survey	students	282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A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the average point was 3.16 for 5, which was regular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ntent point was highest with 3.47 out of 5. By contrast, the internal conflic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scored was lowest with 2.63 out of 5.
3	Lee, et al. [12] (2014)	Level IV	Survey	Professor Clinical fieldwork educator	53 87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system	Clinical fieldwork system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fieldwork	The average time of the clinical fieldwork is 983.5 hours in universities and 517.2 hours in colleges. The largest number of clinical fieldwork institutions were university hospitals, followed by rehabilitation hospitals. And disabled adult institutions make up 66.8%.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in the preparation technique show that in the two group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1 of the intervention items and 19 of the evaluation items. The results of the preparation techniques of newly graduated occupational therapis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8 of the intervention items and 20 of the evaluation items..
4	Lee, Hong & Kim [25] (2014)	Level IV	In-depth interview	students	4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Clinical fieldwork experience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analyzed through phenomenological theory approaches. Results were 14 concepts and 5 themes. The themes were psychology that experienced in clinical fieldwork, professional experience, environmental experience, change of value and behavior.
5	Kim, et al. [26] (2017)	Level IV	Survey	Clinical fieldwork educator	99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system	Clinical fieldwork system Educational methods of practice according to therapy field Problems of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by clinical fieldwork educator	The rehabilitation hospital was the highest ratio in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type. The problems of the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methods of practice according to the viewpoint the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were high in the essential knowledge of the students and lack of basic academic ability. The suggestion of guidelines for the contents of clinical fieldwork education by level and the suggestion of solutions in the essential competencies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clinical field level were high.
6	Hong & Hong [27] (2017)	Level IV	Survey	students	98	Change after clinical fieldwork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fieldwork Self-efficacy	After clinical fieldwork,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fieldwork and self-efficacy im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7	Kang, Nam & Oh [28] (2019)	Level IV	Focus group interview	students	10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Clinical fieldwork experience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analyzed through phenomenological theory approaches. Results were 11 concepts and 5 themes. Components were psychological experience, environment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changes of values and behavior.
8	Young [29] (2019)	Level IV	Survey	students	319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Satisfaction of clinical fieldwork was in order of clinical fieldwork content, satisfaction after clinical fieldwork, clinical fieldwork environment, clinical fieldwork instruction method, clinical fieldwork time, clinical fieldwork evaluation, and internal conflict among clinical fieldwork. In the case of clinical fieldwork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fieldwork period.

4. 논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 등 향후 이상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임상실습 관련 체계적 고찰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국외의 경우 2015년에 Roberts et al.[30]이 124개의 연구를 분석대상 연구로 선정하여 국제적인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에 관한 체계적 고찰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연구 8편(100.0%) 모두가 Level IV(조사연구)에 해당하였으며, 그중 6편(75.0%)은 설문조사법을 통한 정량적 방법, 2편(25.0%)은 면담법을 통한 정성적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Roberts et al.[30]의 연구에서도 조사연구(n=49)가 우세하게 나타나 국내의 경우와 유사한 동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Roberts et al.의 연구[30]에서는 정성적 방법(n=48)과 정량적 방법(n=49)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국내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임상실습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 포괄적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서는 정량적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적 방법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작업치료 전공 학생 대상 연구가 6편(7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주제 분석결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4편(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에 따른 변화와 임상실습 교육체계가 각각 2편(25.0%)으로 분석되었다. Roberts et al.의 연구[30]에서도 주로 교육과정(n=51)과 학생(n=32)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주로 임상실습 참여자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학생들의 인식,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포함되어 국내 주요 주제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내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작업치료사협회에서 임상실습을 수준 I(Level I)과 수준II(Level II)

로 나누어, 수준별 임상실습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수준별 실습의 필요성[31]과 평가방법 개발[32]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임상작업치료사의 임상실습 수준II에 소요되는 시간 조사 연구[33], 임상실습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34]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zellie[3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수준II 학생 실습 지도에 소요되는 임상작업치료사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습생이 없는 기간에 비해 실습생이 있는 기간에 하루 평균 25분의 시간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가의 경력이 낮을수록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mpf[34]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간관리, 도움이 필요할 때 실습지도자와 의사소통하기, 전반적인 전문가적 행동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성기 환자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더욱 필요한 능력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임상실습 관련 연구가 아직은 많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들은 임상실습 관련 연구가 임상실습환경, 실습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교육기관과 임상실습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이상적인 임상실습교육 표준 및 지침 마련의 필요성, 임상실습교육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분석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작업치료 전공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효율적인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 마련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많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현재까지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가 국외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구가 적은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 고찰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임상실습과 국외 임상실습 관련 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임상실습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에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실습 단계별·수준별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평가 방법, 평가내용 등 지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관련 연구, 임상환경 및 교육환경 측면의 임상실습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기관과 임상실습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한 이상적인 임상실습교육 체계 및 지침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 발전방안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B. Saboins-Chafee & S. M. Hussey. (1998).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2nd ed)*, St. Louis, MO : Mosby.
- [2] H. S. Lee. (2007). The Intervention Effects That Lead a Community-Based Strok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and the Participating Student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5(2), 105-115.
- [3] K. M. Kim, K. Y. Chang, H. S. Lee, M. Y. Chang, H. Kim & E. K. Hong. (2017).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Clinical Practi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4), 87-100.
DOI: 10.14519/jksot.2017.25.4.07
- [4] K. Davies, M. Curtin & K. Robson. (2017). Impact of an international workplace learning placement on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64, 121-128.
DOI: 10.1111/1440-1630.12338
- [5] P. Kirke, N. Layton & J. Sim. (2007). Informing fieldwork design: Key elements to quality in fieldwork education for undergraduat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4, S13-S22.
DOI: 1111/j.1440-1630.2007.00696.x
- [6]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6). *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https://www.wfot.org/resources/new-minimum-standards-for-the-education-of-occupational-therapists-2016-e-copy>
- [7] N. H. Kim. (2007). *Pre-Service EFL Teachers' Field Training Experiences and Changes in their Beliefs and Teaching Practices*.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8] J. S. Choi. (2005).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Teaching Practices by Student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e Teach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4), 113-123.
- [9]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0). National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https://www.kaot.org>
- [10] S. H. Hwang, B. J. Jeon & J. S. Choi. (2011).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gosiwon life during field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3), 129-143.
- [1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2020).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Edu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Guidelines*.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 [12] H. S. Lee, K. Y. Chang, H. S. Woo & Y. Y. Yoon. (2014). Preliminary Study of Clinical Training Standardiz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3), 37-56.
DOI: 10.14519/jksot.2014.22.3.04
- [13] E. S. Cohn & P. Crist (1995). Nationally speaking. Back to the future: New approaches to fieldwork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2), 103-106.
- [14] S. Presseller. (1983). Nationally speaking—Fieldwork education: The proving ground of the profess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7(3), 163-165.
- [15] P. A. Crist & R. G. Cooper. (1988). Nationally speaking—Evaluating clinical competence with the new fieldwork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12), 771-773.
- [16] L. D. Shalik. (1987). Cost-benefit analysis of level II fieldwork in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10), 638-645.
- [17] H. Shalik & L. D. Shalik. (1988). The occupational

- therapy level II fieldwork experience: Estimation of the fiscal benefi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3), 164-168.
- [18] J. R. Still. (1982). Mini-councils: A solution to fieldwork supervis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6(5), 328-332.
- [19] J. K. Kim, S. Y. Park, T. Y. Lee & D. H. Kang. (2004).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2(1), 69-82.
- [20] M. J. Lee, K. M. Kim, J. S. Lee, T. Y. Lee, D. H. Kang, K. S. Lee & E. Y. Yoo. (2004). The Current Fieldwork Affiliation Statu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2(2), 105-117.
- [21] M. O. Song. (2009). A Review of Studies for Clinical Fieldwork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6(1), 103-111.
- [22] M. Arbesman, J. & Scheer, D. Lieberman. (2008). "Using AOTA's Critically Appraised Topic(CAT) and Critically Appraised Paper(CAP) series to link evidence to practice". *OT Practice*, 13(5), 18-22.
- [23] H. S. Lee, J. S. Noh, J. J. Cha, S. R. Kim, S. K. Kim, S. G. Park, S. J. Sim, J. H. Lee & M. S. Chu. (2010).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107-121.
- [24] I. S. Lee, Y. M. Lee & C. Jang. (2013). A Survey for Satisfaction Degree on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 in the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1), 45-59. DOI: 10.15268/ksim.2013.1.1.045
- [25] H. R. Lee, E. K. Hong & K. M. Kim.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Change and Experience During Clinical Fieldwork of Students i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35(1), 341-355. DOI: 10.15870/jsers.2014.03.53.1.341
- [26] K. M. Kim, K. Y. Chang, H. S. Lee, M. Y. Chang, H. Kim & E. K. Hong. (2017).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5(4), 87-100. DOI: 10.14519/jksot.2017.25.4.07
- [27] S. Y. Hong & E. K. Hong. (2017). The influence of Fieldwork on Major Skills Required in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4), 405-423. DOI: 10.23944/Jsers.2017.12.56.4.18
- [28] J. H. Kang, Y. O. Nam & M. H. Oh. (2019). A Focus Group Interview(FGI) on Experience During Clinical Fieldwork of Students i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4), 299-309. DOI: 10.21184/jkeia.2019.6.13.4.299
- [29] M. H. Young. (2019).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1), 167-173. DOI: 10.21184/jkeia.2019.1.13.1.167
- [30] M. E. Roberts, B. R. Hooper, W. H. Wood & R. M. King. (2015). An international systematic mapping review of fieldwork edu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Revue de mappage systématique internationale de la formation clinique en ergothérapi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82(2), 106-118. DOI: 10.1177/0008417414552187
- [31] C. A. Leonardelli & L. A. Caruso. (1986). Level I fieldwork: Issues and need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4), 258-264.
- [32] S. Brown, L. A. Caruso, V. C. Stoffel & J. J. McPherson. (1989). Development of a level I fieldwork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3(10), 677-682.
- [33] R. Ozellie. (2017). Occupational Therapy Level II Fieldwork Impact on Clinicians: A Preliminary Time Study.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32(1), 61-71. DOI: 10.1080/07380577.2017.1421800
- [34] E. L. Kemp. (2018). Differentiating Fieldwork Settings: Matching Student Characteristics to Demands.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32(3), 216-229. DOI: 10.1080/07380577.2018.1491084

차수민(Su-Min Cha)

[정회원]



- 2005년 2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사)
- 2010년 2월 : 한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학 전공(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작업치료, 인지재활, 지역사회재활

• E-Mail : csm1206@hanmail.net